

내 몸에 독이 흐른다? TV에도 독이 흐른다!
'MBN 엄지의 제왕 해독 시리즈를 통해 보는 의학 정보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해'

강미지

<웰-비잉의 변형 ; 의학 정보 프로그램 홍수의 시대>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웰-비잉은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맛집, 뷰티 정보 프로그램이 넘쳐났고, 이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웰-비잉의 연장선상에서 의학정보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종합 편성, 지상파, 케이블 할 것 없이 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특히, 지상파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종합 편성은 프라임 시간대를 할애해 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있다. 의학 정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토크쇼 형식으로 낮은 비용으로 제작가능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정보가 확대 재생산된다는 특성 때문에 손쉽게 화제 물이를 할 수 있다. 저비용 고효율을 보장하는 의학 정보 프로그램은 이들 방송사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MBN의 '엄지의 제왕'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작 초기 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나서지 않았으나, 대중들의 선풍적인 호응을 얻은 '해독 시리즈' 방영 이후,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의학 정보 제공에 맞춘 상태다. '엄지의 제왕'은 제작 초기 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인지, 의학 정보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집단 토크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상파의 시청률을 위협할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의학 정보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프로그램의 대표작인 '해독 시리즈'를 분석함을 통해서, 이 방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의학 정보를 맛집 정보처럼 제작하려는 방송가의 태도를 함께 비판하려고 한다.

<방송과 의학 정보의 불편한 동거>

교양 혹은 예능으로 분류된 수많은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 있다. 주부 대상 아침 방송에서부터 본격 의학 정보 프로그램 '비타민', '닥터의 승부', '생로병사의 비밀' 최근 제작된 의학 정보 검증 프로그램 '불편한 진실 메디컬 X'에 이르기까지, 의학 정보 홍수 시대에 방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엄지의 제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의학 정보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단 토크쇼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이 의학 정보 프로그램으로 급조된 탓이겠지만,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변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엄지의 제왕'은 '해독'이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통해 해독 열풍을 일으켰다. '해독 시리즈'는 '해독의 비밀'편을 시작으로 이후 5~6편의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비정기적으로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독 시리즈는 전달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할 뿐 아니라, 정

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되는 전문가도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시리즈로 제작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지만, 전파낭비는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행하는 치명적 문제에 비할 수 없는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1. 단정적이고, 선정적인 단어의 사용

해독 시리즈를 보면서 가장 거슬리는 것은 ‘독’이라는 표현이었다. 백과사전에서 독은 ‘흡입하거나 입과 피부를 통해 혹은 임의의 다른 경로를 통해 흡수되었을 때 생체 조직에 해를 주고 신체에 해롭거나 치명적인 해를 일으키는 천연 또는 합성물질¹⁾’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치명적인 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설명은 다소 순화된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독은 죽음과 관련된 물질로 받아들여진다. ‘독’이 흐른다는 선정적인 표현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으나, 전문가가 제시한 독이란 순환, 배출이 되지 않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했다. 몸 속 노폐물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제거하자는 것이 틀리거나 해로운 말은 아니지만, 이를 독과 해독이라는 선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행위다. 똥, 오줌, 땀과 큰 차이가 없는 배설되지 않은 노폐물이 독이라는 과장된 단어로 위장해 시청자들을 위협한다. 내 몸에 독이 흐른다는 표현을 들은 시청자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피할 수 없다.

독과 해독이라는 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은 자막과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암’, ‘치매’ 등의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한다. 몸에 쌓인 독이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되며, 해독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암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강화된다. 더군다나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의 구성상의 특징으로 인해 해독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조차 시청자에게는 ‘치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쉽다. 자극적인 단어의 선택과 단정적인 표현은 프로그램의 파급력을 극대화한다.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학 정보는 현대인이 실천하기 어려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수준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지만, ‘암’과 ‘치매’라는 단어는 출연자의 말과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시청자에게 주입된다. ‘암’, ‘치매’, ‘독’처럼 선정적인 표현은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정보와 무관하지만, ‘예방’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통해 비난을 피해간다.

해독 시리즈는 프로그램 초반 현대인의 질병의 근원이 몸에 쌓인 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혈압, 변비,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과 함께 암조차도 이런 독으로부터 발병한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은 진행 과정에서 고혈압, 변비, 관절염 등이 개선된 체험 사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해독을 통해 앞서 말한 질환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작진과 전문가는 암 환자를 출연시키지 않고,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자만을 출연시킨다. 암에는 ‘예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이들 만성질환자들에게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프로그램 초반 고혈압, 변비, 관절염 등과 함께 분류되었던 암이라는 충격적인 단어가 이들과 분리된 정보로 수용될 수 있을까? 밤 11시

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5d0785a>

라는 늦은 시각에 반쯤은 잠에 취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차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제작진도 전문가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종이에 써 놓은 것을 보고서야 제작진이 ‘암 치료’가 아니라 ‘암 예방’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무관한 ‘암’과 ‘치매’가 큰 자막으로 처리되고, ‘독’과 ‘해독’등의 표현이 난무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기 때문일 것이다.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해 만병통치약을 판매하는 시골 약장수처럼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2. 효과를 과장하는 애매모호한 표현들

암이나 독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동시에, 해독의 효과는 ‘자연치유력, 면역력, 깨끗한 피, 가벼워진 몸’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증명된다. 제대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관절염, 응급실에 실려 가곤 했다는 만성 변비, 대사 장애, 통풍, 비만, 탈모 환자가 5주 혹은 10주의 해독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았다고 해독의 효과를 증언한다. 해독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파킨슨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못된 생활 습관을 원인으로 하고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다. 이들 질환은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증상의 개선이 가능한 질병들이다. 올바른 복약과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자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생활 습관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로 증상의 호전이 나타났다는 당연한 인과관계는 간과되고 해독의 효과는 찬양받는다.

해독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환자들의 표현은 주관적이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가벼워진 몸’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기가 쉬워진 날,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날 정도의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말이지만, 의학 정보 프로그램에서 치료 과정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쓰이기에는 불충분한 표현이다. 의사 혹은 한의사라는 의학 전문가들은, 보다 명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자신들의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일반인 참가자들의 체험담에만 의존해서 그 효과를 증명하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비록 전문가가 제시하는 자료가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벼워진 몸’이라는 말로 ‘해독’이라는 단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출연해서, ‘난치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 병든 부모님을 너무 쉽게 요양병원에 보내는 자식들은 반성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런 강한 확신을 편집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이용하면서,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의 개선 효과를 본 환자의 얼굴만을 모자이크로 가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는 증상의 호전으로 기뻐하는 가족의 뒤에 숨어서 이를 자신의 주장 강화에 이용할 뿐, 파킨슨병의 제반 증상으로 발생하는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치매의 일반적인 치료법과 치료효과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출연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은 시청자가 가진 건강 정보

와 다를 바가 없다. 치매의 원인이 다양하며, 이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고, 경과,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것은 치매 환자가 있는 집이라면 알 수도 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한 막연한 공포만을 가진 시청자의 경우라면 전문가가 제공한 텍스트는 치매가 해독을 통해서 완치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몇 개의 사진과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치료 효과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해독의 효과로 설명하기에는 개운치 않은 면이 많다. 정상 범위에 들어온 혈당 수치와 혈압을 보여주지만, 이는 약의 복용과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호전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므로, 전문가가 주장하는 해독을 해야만 하는 논거로는 부족하다.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혈액 사진 또한 해독의 효과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전문가는 수없이 ‘피떡’이 사라졌다고 해독의 효과를 설명하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들이 말하는 연전현상이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또한 발견할 수 있다.

3. 비판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방적 정보의 전달

최근 제작된 의학 정보 프로그램들은 여러 의사들의 다양한 견해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시청자가 어렵고 낯선 의학 정보를 균형 있는 시선을 통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JTBC 닥터의 승부’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각 과별, 혹은 의사의 성향별로 다양한 의견을 알려준다. 다수의 의학 정보 프로그램에서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엄지의 제왕’의 경우만 이런 유행을 벗어난다.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과 검증의 기능이 전무하다. 전문가 한 명이 대표로 발제를 하고, 연예인 패널들이 그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의학 정보를 묻는 수준으로 검증은 이루어진다. 함께 출연한 몇 명의 의학 전문가들은 발제를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보충해주는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의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자연치유 전문의’라는 수상한 직함을 들고 나와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의 주장은 전문가라는 후광 속에서 권위를 지닌 절대적인 진리로 둔갑한다. 단정적인 정보의 제공 방식은 시청률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의학이라는 민감하고 전문적인 정보의 경우에 시청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일 수도 있다. 물론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 치명적일 만큼 전문적이지 않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현미를 섭취하라는 보편적인 정보도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약도 사람의 체질,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사서 복용할 수 있는 비타민 C도 부작용이 있다. 해독 시리즈가 제시하는 좋은 생활 습관, 식습관은 실천할 수 있다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제시하는 식품이나 생활방식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특정 질환에 걸린 환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강박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두 번이나 건강한 변의 중요성

을 설명하면서, 건강한 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변을 보는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고, 매일 아침 변을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런 강박이 변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많다. 한 사람의 전문가의 견해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의학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나 피디에게 이들이 제공하는 의학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비판 능력이 부재할 뿐 아니라, 제작진이 이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이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미디어의 상업성과 전문가의 상업성이 만났을 때>

다매체 시대, 미디어의 상업성은 새로운 비판 소재가 아니다. PPL이 합법이 된 방송가는 상업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 방송사와 같은 계열사의 상품이 미션으로 주어지고, 우승자의 요리가 계열사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팔리는 것을 비판하는 매체는 없다. 주부들에게 조리법을 소개하는 요리연구가가 홈쇼핑에서 간편식이나 식재료를 파는 것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의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라는 직업만으로 사회적 지위와 충분한 부를 보장받기 어려워진 시대에, 의사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비난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직업윤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의사가 방송에 출연해 제공하는 의학 정보가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는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방송에 출연한 의사들이 인지도를 이용해서 책을 출간하고, 방송에 소개했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도를 넘어섰다. 사람의 목숨을 다룬다는 이유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손자뻘의 그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잊지 않는 ‘의사’라는 직업의 권위가 상업성 앞에서 무너진다.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했어’가 어린 아이들 사이의 유치한 말싸움을 끝내는 쉬운 논거였던 시대를 거쳐,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수용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에게 있다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 정보 전달의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뿐더러, 시청률을 위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구성을 이용하는 제작진의 뻔뻔함과, 자본의 사회에서 부를 추구하는 의학 전문가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최소한의 직업윤리라는 안전장치 없이 전파를 타고 있다. 미디어는 더 많은 시청자의 관심에 목마르다. 시청자의 관심은 광고주의 자본을 끌어주는 원동력이기에, 다소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쫓는다. 하지만, ‘의학 정보’를 ‘맛집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맛있는 식당은 그저 욕 한번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전달된 의학 정보는 시청자의 건강에 독이 된다.